

수강신청제도 안내(미래캠퍼스)

1. 목적

- 선착순 수강신청에서 발생하는 특정 시점의 집중 현상, 수강과목 매매 등 문제점 해소
- 학생 스스로 과목별 마일리지를 배분 수강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권한을 넓히는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의 불만을 최소화
- 수강신청에 수요에 대한 상세한 자료 축적을 통해 정원 조정 및 추가 개설 근거로 활용 가능

2. 대상

- 미래캠퍼스의 학부 재학생(원주간호대학 1학년 학생 포함)
- 단, 원주의대 및 원주간호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됨

3. 주요 내용

1) 마일리지수강신청 개념

- 학생이 자신에게 학기별로 배정된 일정량의 마일리지 내에서 개별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학기별 마일리지의 총량은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4를 원칙으로 함
- 학생은 한 과목에 최대 본인 마일리지의 1/2(최대 36 마일리지 이내)까지 한 과목에 배분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2과목 이상에 최대 마일리지를 배분할 수는 없음

2) 대학별 마일리지

- 대학원과목은 마일리지 적용 대상이 아님
- 직전 학기 성적 3.75이상 3학점 초과신청 가능하더라도, 초과신청학점에 따른 마일리지 추가 부여 없으며,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이 적용되는 한국어연수의무자(한국어능력 4급 미만)도 소속에 따른 수강신청 허용학점에 의해서만 마일리지의 총량을 결정하여 부여함

구 분		해당 대학	마일리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20학번	2학년	정경대학, 인문예술대학, 과학기술대학, 글로벌엘리트학부	72	18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76	20
		동아시아국제학부	76	19
	3,4학년	정경대학, 인문예술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행정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72	18
		보건과학대학(보건행정학과 제외), 치위생학과	76	19
21학번~	2학년	글로벌창의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제외),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일부학과 제외), 글로벌엘리트학부	72	18

구 분		해당 대학	마일리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76	20
		동아시아국제학부	76	19
	3,4학년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 헬스케어융합대학(일부학과 제외), 글로벌엘리트학부	72	18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76	19

3) 신청내역배정 및 결과공개

-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과목별로 순위를 정렬하고 정원 범위까지의 순위자만 수강신청을 허용함
- ① 과목별로 높은 마일리지를 배분한 학생 우선
- ② 특수교육대상자 우선
- ③ 개설학과에서 설정한 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우선
- ④ 신청과목수가 많은 학생(최대 6개까지만 반영하며, 수강허용학점의 예외 과목은 과목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⑤ 수강신청(마일리지선택제)기간 종료 시점의 졸업(수료)신청자 우선
- ⑥ 초수강(재수강 아님) 우선
- ⑦ 총이수학점/졸업이수학점이 높은 학생(최대값 1.00)

* 일반편입생의 이수학점 = 인정학점 + 취득학점
 * 학사편입생/교환학생의 이수학점 = 학년별 기본 수료학점 + 취득학점
 * Outbound 교환학생 이수학점 = 인정학점 + 취득학점

⑧ 직전학기이수학점/학기당수강가능학점이 높은 학생(최대값 1.00)

* 직전학기 교환학생 등으로 이수학점이 없는 학생은 마일리지 수강신청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전까지 교환학생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 직후 학점 인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 직후의 첫 정규학기에 한해 파견기간에 따른 최대 인정학점으로 계산됨

⑨ 이전 항목까지 동점인 경우 난수를 부여하여 정원 내 순위를 적용함

- 신청내역의 배정결과 화인 후 학생이 이후의 수강신청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내역 배정결과 조회 기간 중에는 수강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희망과목 담기 기능을 통하여 추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미리 설정할 수 있음

4) 추가수강신청(대기순번제)

- 정원을 초과하는 과목의 수강신청 희망자에게는 대기순번이 부여되고,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할 경우 대기순번대로 수강신청이 이루어짐

- 수강신청에서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과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됨
- 수강신청 당시에 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마일리지 및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에 의하여 부여된 순위가 기본 대기순번으로 적용됨
- 수강대기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하는 경우 대기순번이 후순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과도한 수강신청은 불리하게 작용함

5) 수강변경(대기순번제)

- 추가 수강신청의 대기순번을 초기화하여 수강신청 실패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
- 선착순으로 대기순번을 부여하며 수강신청을 진행함
- 대기리스트의 과목은 정원내 수강신청자의 취소 및 정원 변경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신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지 않으면 대기리스트에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함(변경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함)

6) 복학생, 교환학생 등

구분	제도
1차 복학생 수강신청, 교환학생 수강신청,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생 수강신청	재학생과 동일 (마일리지선택제 → 대기순번제)
2차 복학생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승인 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일정이 다르므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의 복학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 대기순번제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취소하는 정원내 수강신청자가 있더라도 과목별로 설정된 전 공자정원/학년별정원에 따라 대기순번 1번인 학생이 수강신청되지 않을 수 있음
- 불필요한 마일리지의 사용 및 과도한 대기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 예외과목을 제외하고 신청한 과목의 학점들의 합계가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학기당허용학점이 24학점인 학생은 채플과 RC활동 과목만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강의시간이 겹치는 경우
 - 학정번호가 동일한 경우(재수강 선택인 경우 제외)
 - 학년별 정원이 0이거나, 전공자정원값과 정원값이 동일한 상황에서 타학과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 수강제한학과로 설정된 학과의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5. FAQ

- 가. <전공별 마일리지 사용한도의 차이> 상경대학 학생입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총량은 72인데 공과대학 학생은 76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목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다름으로 인하여 같은 교양과목을 신청하는 공과대학 학생들보다 수강신청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 ☞ 수강신청 허용학점에 기초하여 마일리지가 부여된 것은 수강신청 허용학점이 높은 학생들은 그만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높기 때문이며, 더 많은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일리지의 총량이 다르더라도 한 과목에 분배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최대값은 36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나. <전공과목별 수강신청 경쟁률의 차이>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저희 학과는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보다 마일리지를 높게 투자해야 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 ☞ 학생에 따라 전공과목에 마일리지를 높게 투자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과목에 마일리지를 과도하게 소모함으로써 다른 과목에 사용할 마일리지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에서는 해당 과목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최대값을 36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학과 선택사항임).

다. <전공과목별 스크린제도> 사회학과 학생입니다. 타 전공 학생들이 마일리지를 높게 분배함으로써 제가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 ☞ 기존에 학과별 스크린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여 전공자만이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원 내에서는 사회학과 학생들 간에 해당 마일리지에 의한 경쟁으로 결정되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학과 선택사항임).

라. <학년별 정원제도 운영> 2학년입니다. 3,4학년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요?

- ☞ 총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들(고학년)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졸업을 위한 수강신청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3,4학년이 2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2학년 과정에서 이미 수강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학년별 정원을 활용하여 2학년 학생들의 수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학과 선택사항임). 필요한 경우, 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에서 각 학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여지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마. <소수과목 신청자의 우선권> 초과학기자나 신입생 중 타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한두 개의 과목만 수강신청할 것이고, 결국 그 학생들이 넉넉한 마일리지를 투자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나요?

-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최대 36까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점자 순위 기준에 수강신청 과목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두 개의 과목만 신청하는 초과학기자 등이 최대한의 높은 마일리지인 36을 선택하더라도 정상

적인 학생들보다 높은 순위를 갖는 경우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는 0이 아닌 1부터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편법으로 수강신청 과목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바. <제도 외 수강신청 '빌어넣기'> 저는 졸업예정자라서 교수님께 부탁드려서라도 꼭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는 예전부터 허용되지 않았던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개편되는 제도하에서는 본인이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일리지선택제를 도입하고 우선순위의 기준에 졸업신청여부를 포함시켰습니다.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하는 과목이라면 높은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제도를 벗어나 수강신청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일리지의 총량과 분배 등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 <능력별 초과학점 신청가능자의 마일리지> 직전학기에 3.75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마일리지가 부여되나요?

☞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마일리지까지 추가로 부여 (이중혜택)되면 원하는 과목을 더욱 많이 선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3학점만큼 많은 과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과목수 만큼 마일리지를 배분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마일리지를 적게 배분해도 수강신청에 성공할 수 있는 과목은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학생들과 비슷한 수의 과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은 추가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대기순번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 <능력별 초과학점 신청가능자의 직전학기이수학점> 직전학기에 그 이전 학기 성적이 3.75를 넘어서 3학점을 초과신청할 수 있었고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18학점만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18/18인 1.00의 직전학기이수 학점 비율을 갖게 되지만 저는 18/21인 0.86을 갖게 되어 피해보는 것인가요?

☞ 직전학기이수학점의 분모에는 초과신청 가능학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18인 1.00의 비율로 동점자 우선순위에 적용됩니다.

자. <대학원과목 신청자의 신청과목수> 대학원과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학원 과목을 제외하면 학부과목은 4과목만 신청할 예정인데, 이러면 우선순위 중 신청과목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인가요?

☞ 대학원 과목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총량의 마일리지를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적은 수의 과목에 배분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청과목수의 불이익이 아닌, 일차적인 결정 요소인 마일리지를 보다 많이 과목 별로 배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차. <과목별 최대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제한> 한 과목에 36의 마일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두 과목만 신청할 예정인데, 다른 과목도 36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 한 과목에만 36의 마일리지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목별로 36의 마일리지를 배분한 동점자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카. <교환학생의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총 이수학점>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아직 학점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일리지가 동점인 경우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나 총 이수학점의 과목별 순위에서 손해보지 않나요?

☞ 교환학생의 직전학기 이수학점은 휴학생과 동일하게 파견가기 이전 학기의 취득학점을 직전학기이수학점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총 이수학점에서는 교환대학으로부터의 성적표 수령이 늦어져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견기간의 학기수 만큼 [학생의 전공에 따른 학년별 기본 수료학점]을 가산합니다(단, 파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학생만 해당됨).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학점만큼 총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빠른 기한 내에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 <모든 조건이 동일한 동점자의 처리> 마일리지 및 기타 우선순위까지 모두 동점인데 다른 학생은 성공적으로 신청되었고, 저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순위 판정에 있어서 마일리지,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전공의 일치 여부, 신청과목수, 졸업신청여부, 초수강여부, 총이수학점/졸업이수학점, 직전학기이수학점/학기당수강가능학점을 적용하고 마일리지 최대값이 36을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을 한 개로 제한함으로써 동점자 발생을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마일리지선택제 기간 동안 전체 수강신청 건수 중 0.0003%)의 과목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종 순위 판정 기준으로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강의실의 여건상 모든 동점자를 성공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적용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 본 제도 및 관련 자료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며, 타 기관이 임의로 도용하여 사용 시에는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교무처